

프랑스 문화부 2년 연속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 헌장 체결

손 동 기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교수

프랑스 문화부는 미디어 관련 기업의 성희롱과 성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 헌장을 체결하고 있음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미디어 기업들의 제2회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헌장’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힘

프랑스에서 미디어와 영화산업에서의 젠더문제는 오래된 숙제와 같음. 이런 상황에서 2019년 3월 출범한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헌장’은 공중파, 신문에서 여성의 진출을 늘리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헌장임

체결식에서는 미디어와 언론, 음악계의 새로운 58개 기업 대표이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음

이미 2011년 프랑스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 대해 2020년까지 임원직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의무화하는 ‘코페-짐머만(loi Copé-Zimmermann)’법을 시행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여성이 경영진의 수장이 되는 일은 드물며, 임원의 비율은 여전히 22%에 불과하고, 여성에 대한 미디어 속 표현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협회의 주도로 미디어 분야 전체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연합하고 있음. 성폭력과 성희

롱, 성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남녀평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협회는 7년 전부터 카메라 앞과 뒤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최근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시청각 미디어에서의 여성이 가지는 위치를 정량화할 수 있었음. 하나는 ‘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가 2020년 발표한 ‘Covid-19 전염병 동안 시청각 미디어에서 여성에 대한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협회와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이하 INA)가 2021년 9월에 프랑스 소설에서 여성에 대한 표현을 분석한 보고서임

IN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여성의 비율은 41%로 남성 5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년 연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밝혔음. 동등한 존재로의 여성 출연은 33%에서 40%로 증가했지만 방송에서 말로 참여하는 것은 남성보다 적고, 37%에서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2018년 3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 비교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음

반면 TV와 라디오 분야의 여성 전문가 비율은 2020년 41%로, 2019년의 38%, 2016년의 30%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심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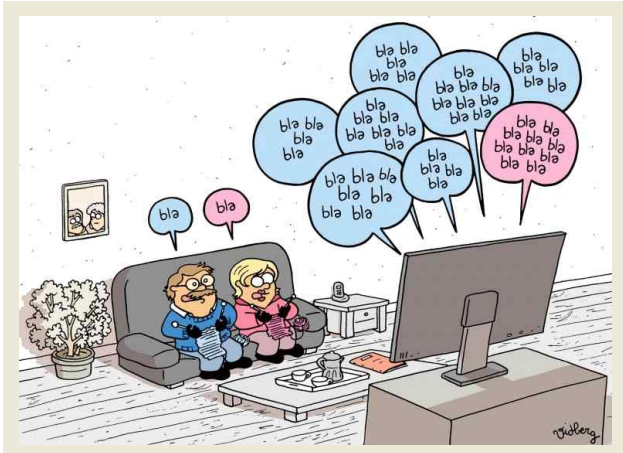


그림 1. 라디오와 TV 남성과 여성 발언 삽화

(이미지 : © INA. 삽화: Martin Vidberg)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미디어의 동등성 부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전문가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함. 프랑스 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상위에 위치하거나 관리직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전문가를 초청할 때 남성 중심으로 출연진이 구성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물론 남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문제도 존재함

프랑스 정부와 사회는 이와 같은 미디어에서의 여성과 남성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일환이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현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 현장 체결

(사진 : © Ministère de la Culture)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현장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Ouest-France> 에서는 ‘평등 뉴

스레터’를 매주 목요일에 무료 발간하고, 칼럼과 홈페이지에 여성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풍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히기도 함

원문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2020.01.21). **Signature de la Charte « Pour les femmes dans les médias », pour la deuxième année consécutive au ministère de la Culture.** (<https://www.culture.gouv.fr/Presse/Communiqués-de-presse/Signature-de-la-Charte-Pour-les-femmes-dans-les-medias-pour-la-deuxieme-annee-consecutive-au-ministere-de-la-Culture>)

Par Héléne Molinari(2021.10.28). **Parité dans les médias : comment changer la donne ?**, Marie Claire. (<https://www.marieclaire.fr/parite-dans-les-medias-comment-changer-la-donne,1402552.asp>)

Delphine Bauer(2021.09.01.). **Loi Copé-Zimmermann : dix ans après, aller encore plus loin**, Actu-Juridique.fr. (<https://www.actu-juridique.fr/affaires/societes/loi-cope-zimmermann-dix-ans-apres-aller-encore-plus-loin>)

INA(2021). **[La Revue des médias] À la radio et à la télé, les femmes parlent deux fois moins que les hommes.** (<https://larevuedesmedias.ina.fr/la-radio-et-la-tele-les-femmes-parlent-deux-fois-moins-que-les-hommes>)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기(2021). “프랑스 문화부 2년 연속 ‘미디어 속 여성을 위한 현장’ 체결”.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정책새소식 제25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동기 dongkison@hotmail.com
작성: 2021.12.31.

#여성 #여성을위한현장 #프랑스 #미디어속여성 #젠더 #성평등